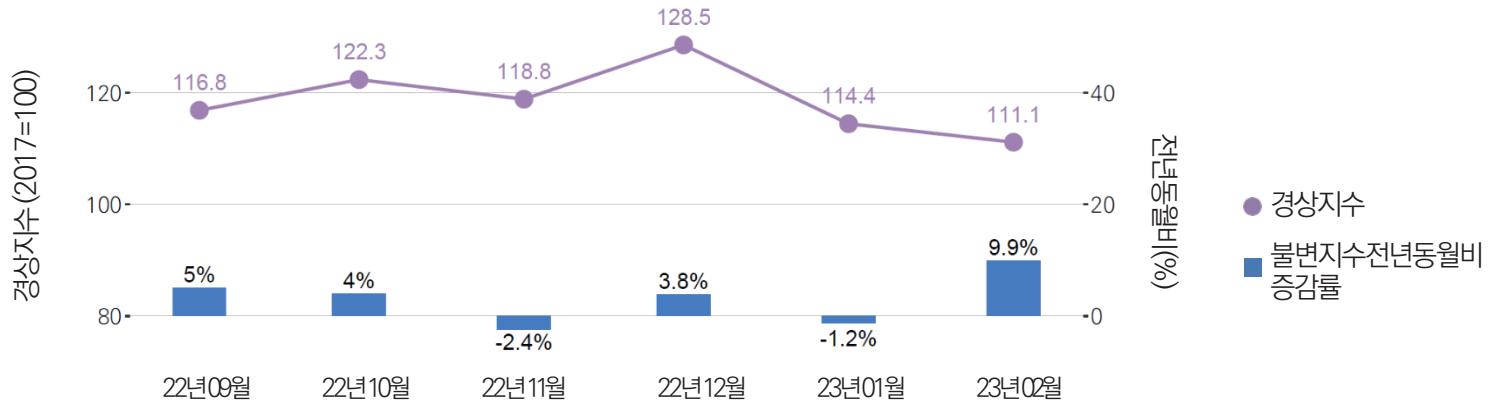
# 서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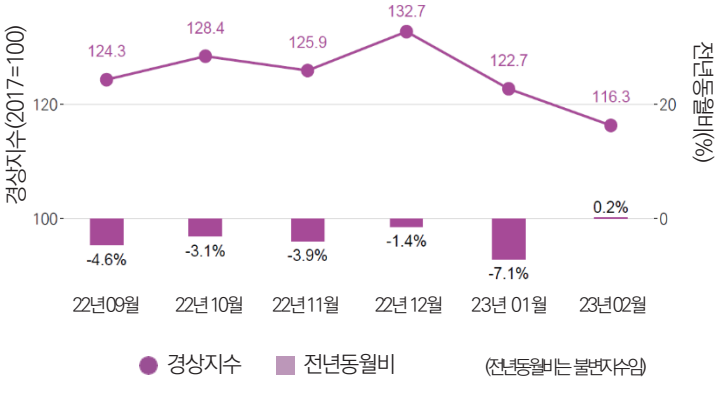
- **2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(전년동월대비) +9.9% 증가**
  - 전년동월대비 +9.9% = 소매업의 기여도 +0.1%p + 숙박·음식점업의 기여도 +9.8%p
    (각 업종별 기여도= 각 업종별 기여율 × 소비경기지수 증감률, 소비경기의 증감률은 업종별 기여도의 총합)
    ※관련 설명은 부록의 '기여도' 참조

- **(전년동월대비) 소매업 소비경기지수는 0.2% 증가,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는 31.2% 증가**
  - 2월 서울 소비경기지수는 전월('23.01) 대비 증가로 전환(-1.2% ⇨ +9.9%), 이는 숙박·음식업의 기여도가 증가 (+3.6% ⇨ +9.8%) 하고 소매업이 증가로 전환 (-4.8% ⇨ +0.1%) 에 기인
  - 2월 서울 소매업 하위업종의 소비경기지수는 1월에 감소하였던 음식료품·담배, 가전제품·정보통신, 의복·섬유·신발업이 증가로 전환되었고, 이를 제외한 종합소매, 기타가정용품, 문화·오락·여가업의 감소세가 줄어들었음
    · 하위 업종들 중, 연료(9.9%), 의복·섬유·신발(9.3%), 무점포소매(4.4%), 가전제품·정보통신(3.6%), 음식료품·담배업(2.9%) 순으로 소비증가
    · 반면, 기타가정용품(-18.3%), 기타상품(-7.0%), 문화·오락·여가(-3.6%), 종합소매(-3.0%), 순으로 소비 감소
  - 2월 서울 숙박·음식점업 하위업종은 주점·커피전문점업(47.2%)과 음식점업(39.5%)이 증가하였고, 숙박업(-5.6%)이 감소
    · 주점·커피전문점업(29.9.8% ⇨ 47.2%)과 음식점업(14.9% ⇨ 39.5%)은 전월대비 증가, 숙박업(-15.3% ⇨ -5.6%)은 전월대비 감소 개선

## 서울 소비경기지수




## 서울 소매업 소비경기지수




## 서울 숙박·음식점업 소비경기지수

